

노자사상(老子思想)과 미스 반 데르 로에(Mies van der Rohe)의 건축사상에 관한 비교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Lao Tzu's Philosophy on Architectural Ideology of Mies van der Rohe

Author 이호정 Lee, Ho-Jung / 정회원,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Abstract Quantum theory of Niels Bohr received the Nobel Prize in Physics was rooted to the Oriental thought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陰陽五行', and architect Frank Lloyd Wright is also known as Lao Tzu's thoughts on the best architectural theory. Thus, the western architecture and oriental thought is very similar to the concept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is fact, the architectural philosophy of Mies van der Rohe is closely contact with Lao Tzu's Taoism, that is 'The greatest has no boundary 大象無形, Tao Te Ching chap.41' or 'The way to be is not to be 有道者 不處, Tao Te Ching chap.24'. Hence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German architect Mies van der Rohe's 'almost nothing' and the Chinese philosopher Lao Tzu's 'Taoism'.

Keywords 노자, 도가사상, 무, 미스 반 데르 로에, 거의 아무것도 없는
Lao Tzu, Taoism, 無, Mies van der Rohe, Almost nothing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역사적으로 동서양의 철학과 사상은 그 근간부터 달리 출발하였다. 그러나 20세기 과학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21세기에 이르러 그들이 추구하는 것의 기본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하고 있다. 양자론으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닐스보어는 자신의 이론은 동양의 음양오행사상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고 했으며,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도 노자사상을 가장 좋은 건축이론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건축에서는 서양 건축가들의 건축표현이 동양사상과 매우 흡사한 개념의 전개를 통하여 건축적인 완성에 이르는 경우를 종종 체험할 수 있다.¹⁾ 이러한 현상 중의 한 사례로 독일의 건축가 미스 반 데르 로에(Mies van der Rohe)를 들 수 있다.

그는 1910년 베를린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전시에서, 그의 '유동하는 공간(space in motion)'에 큰 영향을 받았으며, 1922년 데 스틸의 이론적 지도자 테오 반 도

스부르그(Theo van Doesburg)로 부터의 영향으로 벽돌 조 전원주택(brick country house 1924)를 만들어낸다. 또한 그는 절대주의 화가 카지미르 말레비치가 추구한 '비대상성(non-objectivity)'의 개념과 유사한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풍부하다(less is more)' 혹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almost nothing'), 즉 '無'의 개념을 갖기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공간을 '유니버설 스페이스²⁾(universal space, 보편적 공간)'에서 실현하려 하였다. 그 당시 이러한 일련의 서양적 사고방법은 비대상의 균질한 공간을 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마찬가지로 노자(老子, Lao Tzu)의 대표적 사상중 하나인 '大象無形(대상무형/도덕경 제41장), 가장 훌륭한 것은 형태가 없다.' 혹은 '有道者不處(유도자부처/도덕경 제24장), 존재하기 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있다.'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건축가 미스 반 데르 로에의 건축사상(거의 아무것도 없는 :Almost Nothing)과 중국의 철학자 노자의 '도가사상'을 면밀히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스의 사상적 근간과 노자사상과의 연관관계

1) 강태현·김동영, 루이스 칸의 건축공간과 노자사상의 연관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연논문집 2009.9, p.17

2) 일반적으로 '보편적' 공간으로 해석되는 이 문구를 필자는 보편적이고 균질한 즉 어떤 성격도 주어지지 않는, 우주적 감각을 갖는 공간으로 재해석하려 한다.

를 규명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이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미스 반 데르 로에의 건축철학이 형성된 배경과 그 의미를 정리하고, 그러한 것이 어떠한 건축적인 언어로 실현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분석하여 본다. 분석대상의 작품은 미스의 작품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특히 본 논문에서 노자사상과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는데 이해를 돕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주목을 포함하여 전시관, 미술관 등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노자사상에 대하여서도 그 기본사상의 성립과정과 근본이념의 의미와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미스 반 데르 로에의 건축철학과 건축공간적인 특성이 노자사상과 어떠한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밝혀내어, 건축언어 해석의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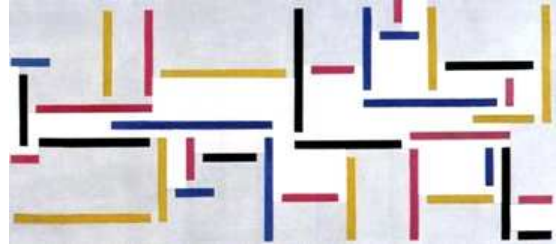
2. 미스 반 데르 로에

2.1. 미스 반 데르 로에의 건축세계

미스는 개인적인 연상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건축가 개인이 자기의 판단과 그의 유희로 건축공간을 독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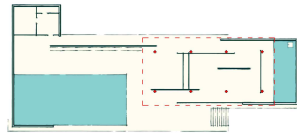
미스는 1910년 베를린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개인전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다. 1922년 미스는 데 스틸의 이론적 지도자 데오 반 도스부르그와 조우하게 되며, 그의 영향으로 벽돌조 전원주택(Brick Country House 1923)을 계획했다. 이 주택은 신조형주의(Neo-Plasticism)적인 구성법과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을 융합해서, 독자적 건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³⁾

알프레드 바(Alfred Barr)가 지적하고 있듯이, 미스가 설계한 벽돌조 전원주택(Brick Country House, 그림3)의 내력벽은 반 도스부르그가 1917년에 그린 회화 <러시아 무용의 리듬 Rhythms of a Russian, 그림 1>중에서 볼 수 있는, 일단의 요소들과 같이 풍차형태로 배치되어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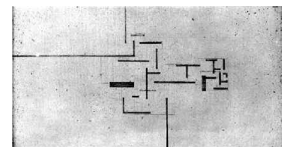


<그림 1> 러시아 무용의 리듬, 반 도스 부르그, 1917

1923년 이후 미스의 작품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가지 중요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베를라헤(Berlage)의 벽돌의 전통, 둘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1910년 이전의 작품에 대한 영향, 그것은 미스가 설계한 벽돌조 전원주택(Brick Country House)의 주변자연으로 확장하는, 수평성이 강한 윤곽 중에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카지미르 말레비치(K. Malevich)의 절대주의(Suprematism)이다. 절대주의의 영향으로 미스는 일련의 자유평면(free plan)을 개발하게 되었다. 미스의 자유평면은 1929년 바르셀로나 파빌리온(Barcelona Pavilion, 그림2)에서 완전하게 완성되어 나타나고 있다.⁵⁾



<그림 2>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미스 반 데르 로에, 1929



<그림 3> 벽돌조 전원주택, 미스 반 데르 로에, 1923

이와 같이 초기 독일시대 미스의 작품은 1922년 데오 반도스 부르그와의 만남과 더불어 라이트를 재해석한 데 스틸(De Stijl)의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하면서 1923년에 창간된 잡지 <G>에서는 리시츠키와의 공동 편집인으로 참여하면서⁶⁾, 말레비치의 비 대상(Non-Objectivity)의 세계를 계속 탐구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미스 반 데르 로에의 건축철학

미스는 "인간"의 개별성(個別性)에 대해 철저한 nihilism이었다. 인간이라는 타인이 배제됨으로서 순수 배양된 건축, 만일 미스의 건축에 이 가설이 성립되었다면, 건축의 욕망이 최초로,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한 유토피아를 향하게 하고, 최후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almost nothing)공동(空洞), 즉 건축 없는 건축에 충동적으로 이

3) Vittorio Magnago Lampugnani, ARCHITEKTUR UND STADTEBAU DES 20. JAHRHUNDERTS, 1980. 이호정 역, 현대건축의 조류, 태림문화사, 1989, p.144

4) K. Frampton, modern architecture-a critical history,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정영철 윤재희 역, 현대건축사(2), 도서출판 세진사, 1988, pp.303-305

5) K. Frampton, 위의 책, p.302

6) Vande Ven, Space in architecture, the evolution of a new idea in the theory and history of the modern movement, 정진원 고성룡 역, 건축공간론, 기문당, 1988, p.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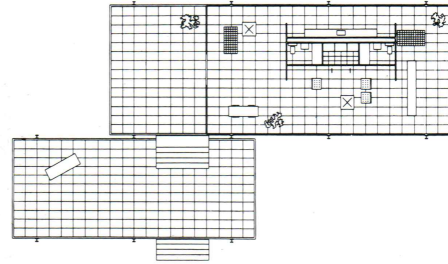
른다는 건축적 전말은 인류에게 있어서도 극히 흥미로운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⁷⁾

미스의 건물은 일관된 사물에 대한 자기억제(自己抑制)와 평정(平靜)함을 유지하고 있다. 미스는 모든 미와 모든 학설 그리고 모든 형식주의를 부정한다. 건축은 시대의 요구를 공간으로 실체화하고·거주하고·변화하고 새로이 전진하는 것이다. 형태는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도덕경 30장 즉, 형(形)이 있는 유(有)가 만인에게 이익(利)이 되기 위해서는 무와 같은 삶을 사는 용(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르셀로나 파빌리온(Barcelona Pavilion 1929)에서 미스는 그의 건축관을 순수한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상호 관입은, 미스 반 데르 로에가 그의 <유동적 공간>의 개념을 가장 완성된 형태에까지 도달시켰다. 유리벽면의 대담한 이용 뿐 만 아니라, 특히 분리 결합의 작용을 하는 다양한 벽체를 기하학적 도식 위에서 자유롭게 배치함에 따라, 공격공간과 사적공간을 교묘하게 결부해서 유동적 공간을 발생 시킨다.⁸⁾ 미스는 지지하는 요소와 지지되는 요소를 분리해서, 명쾌한 연속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 구상은 <적어지면 적어진 만큼 풍부하다 : less is more>라는 그의 사상을 구체화하는 것이다.⁹⁾

1930년대 중반 이후 미스의 발전은 두 개의 상반된 체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낭만적 고전주의의 유산이다. 그것은 환스워스 주택과 레조주택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철골구조에 의한 건축의 비물질화를 지향하며, 투명한 공간에 매어달린 이동하는 평면으로 기존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분명 절대주의(Suprematism)의 이미지이며, 노자의 '무형(無形)'의 사상에 가깝다. 또 하나는 고대세계에서부터 물려받았듯이, 지붕, 보, 기둥 및 벽체의 결정적인 요소들인 기둥-보식(trabeated)건축의 권위였다. 소위, 공간과 구조 사이에 매료되어, 미스는 투명성과 유형성을 동시에 표현하려고 했다. 그것은 유리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 가장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스는 빛 속에서 반사성을 띤 표면의 외관의 등장에서부터 그러한 표면을 상실하고 완전한 투명성으로 변화하기까지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로 '무(無)'의 출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支持)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건축인데 물질임을 거부하는 듯한, 마치 수정을 내부로부터 바라본 듯한 투명성(透明性), 물질에 의거하는 형태가 사라지고 공간만이 떠있는 듯한 비실재성(非實在

性: 무중력상태), 우주의 끝까지 계속 공간의 어딘가 일부가 가끔씩 절취되어 살짝 놓여져 있는 듯한 무한성(無限性), 건물의 상하 좌우도 벽도, 천장도, 안도, 바깥도 없는 듯한 균질성(均質性), 이러한 성격은 모두 비대상의 세계인 우주(universe)의 무한공간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미스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Barcelona Pavilion)만큼 확실히 드러난 예는 없었다.¹⁰⁾



<그림 4> 환스워스 주택, 1946-50, 미스 반 데르 로에

1946-50년 미스가 설계한 환스워스 주택(Farnsworth House 그림4)에서 결과적으로 생긴 상자는 판유리의 표피인데, 이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almost nothing)'이라는 미스의 경구를 신격화한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위하지 않는, 그러나 누구라도 가능한, 그런 공간 바로 그것이 미스가 추구하는 건축 공간이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가 바라는 요구라고 생각했으며, 미스는 그것을 보편적 공간(Universal Space)개념이라는 중심사상으로 체계화했으며, 도구로서 "적으면 적을수록 풍부하다(less is more)"라는 방법론과 그것이 발전하면, 바로 "거의 아무것도 없는(almost nothing)"상태가 되어 미스의 공간에는 실재적이든 비 실재적이든 오로지 빈 공간, 아무 성격도 규명해놓지 않은, 그런 절대적인 무(無)의 공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것이 미스의 공간이 우주적(宇宙的)감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3. 노자사상

3.1. 도의 개념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도가도비상도, 명가명비상명/도덕경 제1장) : 도란, 도를 할 수 있지만 늘 도는 아니다. (도란)이름은, 이름을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이름은 아니다.¹¹⁾

여기에서 노자는 개념적 사유, 즉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부분에 대한 인식이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인식일 뿐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 현상의 배후에 무(無)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無)와 유(有)는 동체(同體)

7) 이호정, 팔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와 미스 반 데르 로에의 건축사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2010, 12, pp.50-51

8) Vittorio Magnago Lampugnani, 앞의 책, p.136

9) K. Frampton, 앞의 책, p.305

10) 신건축사, 건축 20세기 2권, 1991년 6월 임시증간호, p.19

11) 정대철, 노자독법 초판, 안티쿠스, 2013, pp.26-27

이며 통일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無)와 유(有)는 그것에 접근하는 접근로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는 개념상의 차이일 뿐, 무(無)는 ‘제로(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인식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무(無)라는 것이다. 또한 무(無)에서 유(有)로의 전환은 인간의 인식체계 하에 들어온다는 의미인 것이다. 무(無)와 유(有)는 둘 다 같은 것인데 이름만 다르다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무(無)의 세계든 유(有)의 세계든 그것은 같은 것이며, 현묘한 세계라는 것이다.¹²⁾ 또한 도(道)란 자연의 섭리와 형상을 갖고 나타나지만 그 외형적인 형상은 도(道) 그 자체가 아니며 비어있는 것과 촉지(觸知)할 수 없는 것에 도(道)의 본질이 있다고 노자는 주장한다.

3.2. 비움의 개념

노자는 유보다 무를 중시한다. 도덕경 5장에서 “天地之間, 其猶橐籥乎, 虛而不屈, 動而愈出”.(천지之間, 기유탁약호, 허이불굴, 동이유출/도덕경 제5장) :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같으리라, 비었으나 꺾이지 않지만, 움직이면 (폭풍우와 뇌성번개처럼) 더욱 흘러나온다.’ 라고 한 것과 같이 비움이 있음으로서 생명력이 있게 된다. 그것은 비움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와 같은 행성, 그리고 태양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항성, 달과 같은 위성 등은 우주에 촘촘히 떠있다. 노자도 밤하늘 달이나 별무리를 보며 지구도 마찬가지로 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천지之間 허이불굴’이라 쓰인 이상 노자는 이 지구도 우주공간에 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사시사철 자연의 변화를 피부로 느꼈을 것이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 있는가 하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일고 강이 범람하는 날도 있었으리라. 그래서 하늘은 가끔 번개와 천둥을 내리고 땅은 폭풍과 세찬 비바람을 쏟아낸다. 바로 그것을 ‘탁약’에 비유하여 ‘동이유출’로 이야기하고 있다.

‘허이불굴 동이유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지之間’이며 그것을 절구나 피리 또는 풀무를 빗대어 ‘그것이 비어있지만 평상심의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더 넘쳐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 속에는 ‘(도의 뜻에 따라)개풀 보듯 만물을 바라보는 천지도 움직일수록 흘러넘치는데 우리 인간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라는 뜻이 들어있다.¹³⁾

3.3. 무용의 개념

“三十輻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埴埴以爲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牖以爲室, 當其無, 有室之用. 故有之以爲

利, 無之以爲用”(삼십폭공일곡, 당기무, 유거지용. 선식이 위기, 당기무, 유거지용. 착호유이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고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도덕경 제11장) : 서른 개의 바퀴살이 모이는 바퀴통은 그 속이 ‘비어있음’(無)으로 해서 수레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비어있음으로 해서 그릇으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문과 창문을 내어 방을 만드는데 그 ‘비어있음’(無)으로 해서 방으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따라서 유(有)가 이로운 것은 무(無)가 용(用)이 되기 때문이다¹⁴⁾

이 장은 노자가 생각하는 무(無)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즉, 형(形)이 있는 유(有)가 만인에게 이익(利)이 되기 위해서는 무와 같은 삶을 사는 용(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퀴를 보며 바퀴살의 고마움을 생각지 않고 그릇을 보면서 찰흙의 고마움을 생각지 않고 그릇의 요긴함만 생각한다. 또한 방을 보면서 창문의 고마움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찰흙과 같은 역할들이 없다면 이루고자 하는 더 큰 것을 완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이것을 ‘용(用)이 아니라 용을 낳는 무(無)가 되는 삶’을 말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표현이다. 다시 말해 ‘쓰임을 위한 이기(利器)’가 아니라 ‘쓰임의 소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로서의 삶(이것이 無인 삶이다)’을 요구한다. 여기서 예를 들어 사용한 바퀴 살, 찰흙, 창문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면 쉽게 이해 될 것이다.

여기서 노자는 비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0개의 바퀴살, 찰흙, 창이나 문이 無가 되는 쓰임이 되어 더 큰 것의 이로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비어있어 쓰이는 것은 그릇이 된 다음의 일이지 찰흙이 직접 그와 같은 쓰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철학으로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無를 생각하는 노자의 관점이다. 분명 바퀴살이나 찰흙이나 창, 문은 ‘없는 것이 아니다.’ 필요로 하는 것(모습)의 속에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無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無는 아니다. ¹⁵⁾ 미스의 건축적 골격이 건축적 표현수단으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비워져 있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무성격화 중성적 프레임으로서 유리 혹은 검은색의 철골프레임을 사용하여 비 물질화를 추구한 것도 그것에 해당한다.

노자의 이런 철학은 건축공간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건축공간에서 무형의 공간과 벽 사이의 상반상성의 관계를 보면 벽이 없으면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벽은 공간이 생기도록 돕고, 공간은 벽의 작용을 하도록 돕는다.

건축공간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12) 근본을 중시하는 철학체계: 신영복,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돌베개, 2005, pp.270-71
13) 정대철, 앞의 책, pp.69-70

14) 신영복, 앞의 책, p.292
15) 정대철, 앞의 책, p.103

외형적인 것의 디자인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과 비어있는 것을 쓰임새 있고 의미 있게 구성하는 것에 있음을 감안할 때, 도가사상에서 주장하는 자연의 도(道)를 체득하고 조화(造化)의 변화에 순응하는 자재(自在)정신은 우리들 건축가로 하여금 새롭고 뜻있는 건축공간을 창출하는 경지에 이르게 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¹⁶⁾ 즉 노자는 내부의 아무 것도 없는 공간이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 물체보다 한층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3.4. 무위의 개념

“道常無爲，而無不爲”(도상무위, 이무불위/도덕경 제37장) : 도는 영원히 꾸밈이 없어서 꾸미지 못할 것이 없다.

도는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이 영원히 '무위'하다. 즉 꾸밈이 없는 텅 빈 그 무엇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이롭게 생각하는 은하나 만물처럼 꾸미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무위'를 좀 더 명확히 하면, 이 문장에서 무위의 주체는 도이다. 즉 도가 '무위'라는 말이다. 도가 무위함으로 이는 단순한 꾸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순수' 또는 '진실체'라고 보아야 한다. 즉 텅 비어있어 성질 없는 '무극'이요 달이 짝 차듯 더 이상 갈 수 없는 극점에 이른 그 무엇이다. 그러므로 이 이상의 더한 순수체는 없다. 그럼 그 곳에서 영원히 안주만 하는가? 당연히 아니다. 끊임 없이 그는 되돌아온 만물에게서 복명(復命)을 받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여 다음을 기약한다. 그래서 또 다시 형이하학 즉 천지만물로 되돌려준다. 즉 모든 것을 꾸밀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다음에 이어지는 무불위(無不爲)이다.¹⁷⁾

무위(無爲)란 무엇인가를 하긴 하되, 즉 하지 않는 것이 없되 그것을 무리하게 억지로 작위적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했다고 내세우지도 않는 것이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잘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 때 '아무것'이란 부질없는 탐욕, 인위적 무리함, 물질적 집착, 쓸데없는 걸치레 등이며, '더 잘 한다'는 것은 물질적 욕심과 집착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참된 것, 진정으로 이로운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 목적은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얻는데 있다. 다만 그 물질이 세속적이고 인간적 탐욕으로 가득 찬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물질 상태에 의해 새롭게 정의된 진정한 의미의 물질이어야 한다.

3.5. 무형의 개념

“大成若缺，其用不弊，大盈若沖，其用不窮。(대성약결 기용부폐 대영약충 기용부궁/도덕경 제45장) : 완전하지 않은 완성은 유용하며, 채워지지 않은 충만은 바람직하다.

무형은 단순히 형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형태가 있고 없음은 중요하지 않다.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형태를 한 가지 상태로 고착시켜 보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태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형태가 없으면 당연히 고정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무형은 곧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물질의 고정성에 집착된 구속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곧 규범과 목적이 통일된 상태, 즉 합목적성이 도달된 상태를 의미한다. 목적이란 사물이나 자연 상태가 존재하는 이유를 의미한다. 세상 만물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다양한 주변 요소들과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 존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변 요소에 도움을 주고 주변 요소로부터 도움을 받는 쌍방향의 관계가 만족되어야 한다. 이런 만족 상태가 바로 존재의 이유이다. 그리고 이것을 상대방에 대한 이로움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은 인간이 해석하기 전부터 본래적 상태로 형성된다. 자연의 본원적 존재 상태의 하나라는 의미이다. 쌍방향의 이로움을 통한 공존을 전제로 한다.

자연개념으로 정의되는 무형은 공간을 비움으로 정의할 때 얻어진다. 공간은 본래부터 존재의 이유 및 이것의 순리적 발현으로서의 목적을 갖는다. 사람이 들어와 살면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요구 이전에 좀 더 일반론적 의미로 정의되는 공간의 본원적 의미이다.¹⁸⁾

4. 미스 반 데르 로에의 건축공간과 노자 사상의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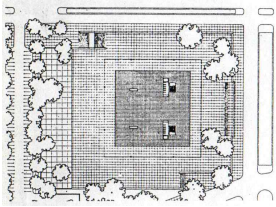
노자는 '천지지만 허이불굴(도덕경 5장)'에서, 비움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지구도 무한한 우주공간에 떠 있음을 이야기 한다. 우주공간에 떠 있는 지구 그것이 바로 미스가 추구하는 유니버설 스페이스(universal space, 보편적 혹은 우주적 공간)일 것이다. 공간적 측면에서 공간이 비어 있음으로 하여 그 공간은 어떠한 용도나 특성에 속박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빈 공간은 생명력이 있고 지루하지 않으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미스의 작품에서 우주적 감각을 갖는 것은 벽돌조 전원주택(Brick Country House)과 바르셀로나 파빌리

16) amos ih tiao chang, 윤장섭 역,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개정판, 기문당, 1996, p.4

17) 정대철, 앞의 책, p.297

18) 최민근, 이승용, 한국전통주거에서의 제3의 영역해석가능성에 관한 연구, 2005.11, p.2

온(Baselona Pavilion)등에서 볼 수 있다. 즉 전후좌우, 내부와 외부, 인공과 자연이 하나가 되며, 마치 무중력 상태에서 부유하는 듯한 그런 공간, 인위적 공간조차도 최소한의 조각으로 성격을 부여하지 않는 균질한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그림 5> 뉴 내셔널 갤러리 평면도, 베를린, 미스 반 데르 로에



<그림 6> 뉴 내셔널 갤러리 내부전경, 베를린, 미스 반 데르 로에

또한 미스는 환스위스 주택 혹은 뉴 내셔널갤러리 등의 평면 바닥에 격자형 그리드 패턴, 즉 끝없이 반복되는 4각형 그리드를 사용하여, 성격이 부여되지 않은 균질한 공간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표 1> 미스의 건축사상과 노자의 도가사상 비교

	중심사상	실천적 도구	
미스의 건축사상	보편적 공간 (Universal Space)	적으면 적을수록 풍부하다(Less is More)	
		거의 아무것도 없는(Almost Nothing)	
노자의 도가사상	도가적 공간	도	도덕경1장/ 道可道非常道, 名可名非常名
		비유	도덕경5장/ 天地之間, 其猶橐籥乎, 虛而不屈, 動而愈出
		무용	도덕경11장/ 三十輻共一轂, 當其無, 有車之用. 埴埴以為器, 當其無, 有器之用. 鑿戶牖以為室, 當其無, 有室之用. 故有之以為利, 無之以為用
		무위	도덕경37장 /道常無爲, 而無不爲
		무형	도덕경45장/ 大成若缺, 其用不弊, 大盈若沖, 其用不窮

노자가 지적하는 도의 개념, 즉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부분에 대한 인식이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인식일 뿐이라고 도덕경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스의 공간에서도 일부 코어를 제외하고는 실의 용도를 규정하지 않은 균질한 공간 즉 유니버설한 스페이스를 제안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해서 공간은 어떠한 공간으로도 사용 가능한 풍부한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그림 2, 3, 4>

무위(無爲)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잘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도덕경 37장). 즉 공간적 측면에서 공간이 비어 있음으로 하여 그 공간은 어떠한 용도나 특성에 속박되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빈 공간은 생명력이 있고 지루하지 않으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미스의 '적으면 적을수록 풍부하다(less is more) 그래서 궁극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almost nothing)상태를 추구하고, 노자의 '無', 무위(無爲), 사상

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된다. 무형(無形)은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의미한다.(도덕경 45장) 자유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물질의 고정성에 집착된 구속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곧 규범과 목적이 통일된 상태, 즉 합목적성이 도달된 상태를 의미한다.

도덕경 11장의 무용의 개념 즉 즉 형(形)이 있는 유(有)가 만인에게 이익(利)이 되기 위해서는 무와 같은 삶을 사는 용(用)이 있어야 하며, '쓰임을 위한 이기(利器)'가 아니라 '쓰임의 소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로서의 삶(이것이 無인 삶이다)'을 요구한다는 내용에서, 미스는 건축 그 자체는 어떠한 궁극적 목적을 위한 '용기' 혹은 '장치'로서 존재 할 뿐,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1943년 소도시를 위한 박물관계획(그림4)에서 미스는 공간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전시물이 그것이 놓이는 공간의 주인공이 되어야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투명유리 밖의 변화하는 자연을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이어 전시물의 배경이 되게 함으로써 전시물과

<표 2> 미스의 건축작품과 노자의 도가사상과의 연관성

<도의 개념>도덕경1장 '도가도비상도 명가명비상명' '도란, 도를 할 수 있지만 늘 도는 아니다. (도란)이름은, 이름을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이름은 아니다	
	본 주택에서의 벽체는 내부와 외부를 규정하는 수단이 아니다. 벽체는 단순히 어떤 공간을 규정하는 것이며 그곳은 내부일 수도 있고 혹은 외부일 수도 있다. 오히려 그 어떤 것도 아닐 수 있다.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 한정되는 것일 수 있다.
	계단을 따라 진입하면 수공간이 나오며 벽체에 의해 명확하게 한정되지 않은 내부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며 결국 골베의 조각상이 있는 또 다른 수공간에 도달하게 되지만 그곳도 역시 내부가 아니라 뒤로 열려있는 외부공간임을 인식할 수 있다.
	환스위스 주택은 물을 사용하는 주방과 욕조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간의 영역성을 초월한다. 가구의 배치에 따라 그곳은 거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침실이 될 수도 있으며 회합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즉 미스의 환스위스 주택에서는 없음이 더 많은 있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움의 개념>도덕경5장 '천지간 허이불골' : 이 지구도 무한한 우주공간에 떠 있음	
	균질한 그리드로 처리한 미스의 일련의 주택작품의 내부공간은 공간에 어떠한 성격도 부여하지 않은 수학적, 물리학적 공간에 지나지 않는 무의미한, 무성격한 공간을 추구한다. 그것이 바로 우주적 공간을 추구하는 유니버설한 스페이스(보편적 공간)이다. 미스의 공간은 이미 3차원의 인간적공간이 아니라 중력이 없는 우주적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무위의 개념>도덕경37장

'도상무위 이무불위' :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잘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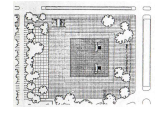
바르셀로나 파빌리언

공간에서의 절대순수를 추구하는 바르셀로나파빌리언의 공간은 최소한의 벽체를 공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공간에서의 순수 그 자체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순수는 무엇도 담을 수 있는 무불위의 상태에 이른다.



환스위스 주택

환스위스주택에서는 공간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공간도 가능한 무한의 공간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입면에서는 순수하고 투명한 유리 그리고 철골구조의 걸쳐려 없는 순수한 디테일은 건축물 그 자체 보다는 공간을 강조하려는 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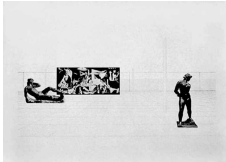


뉴 내셔널갤러리

중심에 코어를 제외한 공간은 최초부터 비워져 있는 전시를 위한 공간이다. 철골구조에 의한 유리 외벽선조차 도면에서는 희미하다. 공간에 어떠한 조작도 없는 그러한 꾸밈이 없는 공간은 무한히 확장을 한다.

<무형의 개념>도덕경 45장

'대성약결 기용부태 대영약총 기용부궁' : 형태를 한 가지 상태로 고착시켜 보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태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소도시를 위한 박물관

소도시를 위한 박물관 계획과 레조주택의 실내 투시도에서 미스는 건물의 형태를 없앴다. 단지 희미하게 건물내부의 기둥과 커튼월 바만이 존재한다. 건물의 형태를 중심적으로 처리하는 수법, 예를 들면 전면의 유리벽면과 가볍고 날렵한 검은색 페인트의 철골구조는 건물이 액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레조 주택

<무용의 개념>도덕경11장

'삼십육공일곡, 당기무, 유거지용, 선식이위기, 당기무, 유거지용, 착호유이위실, 당기무, 유실지용, 고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 : '쓰임을 위한 이기(利器)'가 아니라 '쓰임의 소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로서의 삶'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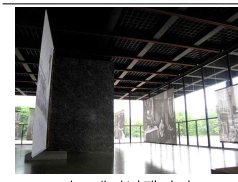


소도시를 위한 박물관

소도시를 위한 박물관계획과 레조 주택에서의 무용은 무성격한 중성적 프레임으로서 유리와 검은색의 철골프레임을 사용하여 비물질화를 추구한 것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 입면적 디테일은 비워져있는 공간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미스의 의도이다.



레조 주택



뉴 내셔널갤러리

뉴 내셔널갤러리에서의 바닥 그리고 지상에 살짝 떠있는 지붕 그리고 가는 기둥과 유리벽 그리고 천정의 격자형 구조에 의한 중성적 건축, 그것은 쓰임의 소용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

주위 공간과의 자연스런 조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기둥과 바닥패턴을 나타내는 건축선들이 너무 희미하고 가는 선들로 되어있어서 피터 블레이크(Peter Blake)는 그 선들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돋보기를 사용하라고 충고 할 정도이다. 미스는 예술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유로운 배치가 허락되는 공간을 고안했고 이를 위해 정작 자신의 건물은 거의 없는 것(almost nothing: 이런 몽타주의 표현방식을 미스는 “자신을 지우는 겸손self-effacing modesty이라고 표현했다)”¹⁹⁾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블레이크는 간주했다.



<그림 7> 소도시를 위한 박물관계획, 1943, 미스 반 데르 로에

특히 자연의 무한히 변화하는 현상에 주목한 미스는 그의 후기작품에서 이 변화하는 자연을 내부공간의 주요 소로 점점 더 강조했다. 스스로 변화하는 자연의 힘을 전면 유리창을 통하여 건축 공간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내부 공간 또한 생동감 있게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림 8> 레조 주택 거실의 내부 투시도, 1939, 미스 반 데르 로에

또한 레조주택(Resor House, 그림8)에서 건물 그 자체는 특정한 시각적 대상이기보다는 이러한 관계가 그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용기(容器)'역할을 하게 된다. 즉 1939년의 그림들을 보면 천정과 바닥에 의해 프레임화 된 외부의 사진, 클레(Paul Klee)의 추상회화 “Colorful Meal”이 그려진 벽, 가구, 기둥은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내부공간에 '설치된' 요소들과 외부공간의 '본래적인' 자연은 '지어진' 천정과 바닥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에 의해 통합되는, 즉 공간과 자연을 위한 '용기'가 될 것을 의도 했다. 피터 블레이크는 미스의 유니버설 스페이스를 “시청에서 자동차쇼룸까지 거의 모든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하며 미스의 투명하고 비워진 간을 다 기능적 공간으로 간주했다. 사실상 미스의 개방형 공간은 기능적 공간이라고 한정지을 수 없다.

일레로 베를린의 뉴 내셔널 갤러리(New National Gallery 1962-68)의 주 공간(그림5,6)은 사면이 유리벽으로 되어있으며, 덕트를 감싸는 중앙의 두 개의 벽을 제외하고는 비어있다. 이 건물의 용도는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곳의 공간은 비워져있는 'less'의 상태로 지어졌으나 훌륭한 예술품으로 채워질 때 그 공간의 분위기가 'more'가 되도록 의도 되었다. 미스의 공간적 사유는, 공간에 성격을 규정(define)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만을 한정(confine)하여 어떠한 것도 가능한 그러한 풍부한 공간을 의도했던 것이다.

19) Peter Blake, Mies van der Rohe, Architecture and Structure (Baltimore: Penguin Books, 1960), 87

5. 결론

당시 근대의 전통을 이어받은 미스는 꼴뿔제 혹은 라이트의 건축적 방법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라이트의 유동하는 공간과 데스틸의 건축적 방법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건축 결과물이 사뭇 다른 것은 미스의 공간에 대한 해석방법이 또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중국의 철학자 노자의 저서 도덕경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道)란 자연의 섭리와 형상을 갖고 나타나지만 그 외형적인 형상은 도(道) 그 자체가 아니며 비어있는 것과 촉지(觸知)할 수 없는 것에 도(道)의 본질이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미스의 건축은 건축이 아니라 건축적 장치이기를 기대했다. 자신을 지우고 또 지워져 거의 아무것도 없는(almost nothing, 無)상태에 까지 이르러 하므로 해서 더 많은, 더 풍부한 무엇인가를 얻으려 했다(less is more). 미스의 건축은 주관적 형태를 배제하며, 중성적 프레임으로서의 건축을 지양한다. 무성격 한 형태와 색채는 건축물이 객체임을 의미한다. 그 내부 공간과 외부자연 더 나아가서 우주로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공간의 일부임을 의미한다.

미스의 건축철학은 노자의 도덕경과 깊은 관계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사상은 각각이 개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도(道)’라는 개념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처럼, 미스의 건축철학 또한 ‘less is more(적으면 적을수록 풍부하다)’, ‘almost nothing(거의 아무것도 없음)’ 그리고 ‘universal space(보편적, 우주적 공간)’의 개념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미스의 건축철학은 첫째, 이름 붙여진 혹은 규정된 공간을 지양하여, 그 공간이 필요에 따라 침실, 거실 혹은 서재 등 어떠한 공간으로도 전이가 가능한 상상력 풍부한 공간이 되도록 하였다.

둘째, 무한한 우주공간의 일부로서의 건축적 공간을 추구한 미스의 공간은 유니버설 스페이스(보편적, 우주적 공간)로 표현되며 그 실천으로 바닥의 패턴과 천정의 디자인이 격자형그리드 혹은 백색으로 표현되며 평면도에서도 격자형 그리드 혹은 패턴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건축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건축을 가능한 없애므로써 나타나는 비워진 공간이 건축의 본질임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강태현, 김동영, 루이스 칸의 건축공간과 노자사상의 연관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09.9
2. Vittorio Magnago Lampugnani, ARCHITEKTUR UND STADTBAU DES 20. JAHRHUNDERTS, 1980. 이호경 역, 현대건축의 조류, 태림문화사
3. K. Frampton, modern architecture—a critical history, Thames

- and Hudson Ltd ,London, 정영철 윤재희 역, 현대건축사(2), 도서출판 세진사, 1988
4. Vande Ven, Space in architecture, the evolution of a new idea in the theory and history of the modern movement, 정진원 고성룡 역, 건축공간론, 기문당, 1988
5. 이호정,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와 미스 반 데르 로에의 건축사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 논문집 2010.12
6. 신건축사, 건축 20세기 2권,1991년 6월 임시증간호
7. Peter Blake, Mies van der Rohe, Architecture and Structure (Baltimore: Penguin Books, 1960)
8. 노자독법, 정대철 지음, 초판, 안티쿠스, 2013
9. 근본을 중시하는 철학체계: 신영복,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돌베개, 2005
10. amos ih tiao chang지, 윤장섭 역,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개정판, 기문당, 1996
11. 노자, 도덕경, 정창영 역, 초판, 시공사, 서울, 2003
12. 김경서, 노자에 있어서 도와 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5
13. 최민근, 이승용, 한국전통주거에서의 제3의 영역해석가능성에 관한 연구, 2005

[논문접수 : 2014. 03. 19]
 [1차 심사 : 2014. 04. 23]
 [2차 심사 : 2014. 05. 05]
 [3차 심사 : 2014. 05. 14]
 [게재확정 : 2014. 06. 13]